

中央藥大 同門會報

가을

2006년 제21호



CAU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서울시 약사회장 단일후보 **조 찬 휘**

행복한 약사, 활기찬 약국, 당당한 약사회
우직-듬직-정직의 실천가 조찬휘가
약속 합니다.



10개
역매품
선정하고

살 맛 나는 약국경제 이룩

100가지
복약, 상담기법
개발하여

1일
10만원 이상
매출증진



권혁구 (9회) 동문회장

동문회가 먼저 단결하고 화합해야 약사회가 튼튼합니다.

우리 중앙인의 가슴속 깊이 자리잡고 있는 “영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강의 한 복판을 가르며 하늘을 향해 트림하고 치솟듯이 여의주를 입에 문, 장엄한 위용을 지닌 “청룡상”입니다.

“영원한 청룡의 학우 여러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장 권혁구 인사드립니다.

항상 모교의 발전을 염원하며 중앙약대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약사로서 소명의식에 충실하신 동문여러분께 동문회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동문회장에 취임한 후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우리 동문들이 더욱 단결하고 화합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약사 사회에도 일조하는 동문회상을 구축하기 위해 나름대로 힘써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대다수 약사들이 의약분업의 그늘에서 고생하는 현실에서 우리 중앙약대의 상심과 좌절은 많은 회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역동문회를 통해 약사회에 진출하여 더 많은 회원들에게 더 큰 봉사를 다짐하는 동문을 격려하고 힘을 보태고자 동문회 차원의 후보단일화를 도모하였던 것입니다.

약사회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선거과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선거과열을 진정시키고자 한 노력이라는, 변명 아닌 변명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저 자신도 무척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선거과열을 줄이려했던 저희 동문회의 노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과열로 포장되고 심지어는 야합과 비민주적 횡포로 비난의 도마 위에 올려놓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동문이 추구해온 후보단일화는 우리 동문회가 반드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승리의 욕심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

닙니다.

동문이 단결하는 게 왜 나쁜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선약사 후동문”은 동문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는 하나다”는 의식을 강화하자는 소리로 이해합니다.

동문은 그 다음에 찾자는 얘기라고 여깁니다.

자랑스러운 중앙약대 동문여러분.

동문회 보다 약사회가 우리 약사의 중심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동문회는 약사회를 떠 받치고 있는 추춧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추춧돌이 부실하고 훼손이 된다면 약사회의 지붕은 붕괴 될 것입니다.

동문회가 화합하지 않고 결속되지 않는다면 약사회의 단결은 어디서 구해야 한다는 것인지 함부로 모순된 말들을 해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문회와 동문여러분께서는 선거에 앞서 두 가지 자정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믿고 이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상대만을 비난하며 회원을 기만하는 위선적인 인물에겐 절대 약사회의 권한과 회원의 복지를 맡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동문회의 판단에 따라 엄선된 후보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 또한 동문회의 기능임을 직시해야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우리 동문회의 역사적 후보 단일화에 믿음을 가지고 정당당당하게 우리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기원합니다. 그것이 전체의 회원을 위한 길임을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중앙약대의 승리가 아닌 전체회원의 승리를 가져오도록 올바른 선거 문화를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섭시다.

동문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경기도 약사회장 단일후보 박기배



소신과 열정으로
365일 행복한 약국을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약사회장 예비후보

박기배

생애연락처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백어동 1248번지
Tel : 02)9009-7723 / 112 / 011-913-6147
http://www.gbpark.or.kr / E-mail : isanmedica@hanmail.net

저와 함께 약사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박기배**를 만나면 **행복**해 집니다.

왜?

박기배는...

1. 회원의 고통을 함께하고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2. 약사님을 실력 있는 약사님으로 만들겠습니다.
3. 약사님을 능력 있는 CEO(최고경영자)로 만들겠습니다.
4. 약사님의 약국을 신뢰받는 약국으로 만들겠습니다.
5. 약사님의 약국을 잘 사는 약국으로 만들겠습니다.
6. 약사님의 약국을 행복한 약국으로 만들겠습니다.
7. 약사회에 약국 지원 센터를 마련하겠습니다.
8. 능력 있는 약사님을 발굴해 약사님의 약국을 지원하겠습니다.
9. 약사회가 약사님의 약국을 위해 외압을 차단하겠습니다.

저 **박기배**는...

약사님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CEO로,
약사회는 약사님의 모든 것을 지원하는 센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 약사 회원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

365편 프로젝트 세부 실천 계획

1. 경기도약사회 회비 인하

- ① 약국 소모품의 공동 제작, 공급을 통한 수익극으로 회비 대체
- ② 의약품 공동구매등을 통한 집수입항목 증대
- ③ 회비 낭비요소 제거 및 불필요한 지출 최소화

2. 약사감시 일원화 및 자율지도권 쟁취

약사회의 자체 자율지도를 통한 행정기관 개입의 최소화
고질적 문제약국 리스트를 작성하여 행정기관과 공동 감시 체제 확립

3. 약국 수익의 극대화

- ① 약국내 셀프메디케이션 홍보 전략으로 일반약 활성화
지역주민을 위한 셀프 메디케이션 홍보 및 교육으로 약국 이용률 증대
- ② 고령화 사회 및 2008년 노인수발보험 시행에 대비
고령친화(실버산업)제품 개발(발굴)을 통한 약국 취급 선정 및 활성화
- ③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건강관련 식품 및 용품을 개발, 선정하여 약국 취급
- ④ 선진국 약사회와 지매결연 등을 통한 약국경영 성공사례 및 노하우 도입

4. 약국 절세 방안

- ① 약제비 소득세 원천징수 구조 개혁 추진
- ② 약국 절세방안 연구 및 사례집 발간
- ③ 이중과세 및 부당 부과 취합 및 공동대응

5. 약국에서 받는 연수교육

- ① 인터넷 방송등 진보적 미디어 및 전문 매체를 활용한
"약국에서 받는 연수교육" 실시 / 편의성과 교육비절감 기대
산상신고 후 인터넷방송가입 → 방송신청 후 인터넷 평가 → 연수교육 일부시간 인정
- ② 동 매체를 통한 공통 학술강좌 및 약국경영 노하우 강좌 개설

6. 소비자의 이해와 협력을 통한 정책 실현과 문제해결

[모티브]

- 성분명 처방 / 100% 대체제 가능 / 소포장의무화 / 재고약 근본해결
: 약효는 비슷한 후발 제네릭이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줄인다는 근본취지
- ① 소비자, 언론,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상설 자문기구 설치
 - ② 소비자 목소리 듣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구설치

7. 소수 분회 회무 통합관리 네트워크 구축

사무국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분회의 연합 사무국 설치

8. 각 지역 거점 도매상을 이용한 협력시스템 구축

- ① 지역 도매상을 약사회 협력 업체로 지정하여 약국간 교품 및 각종 책자 및 발간물을 신속하게 약국에 직접 배송
- ② 반품사업 지정도매 업체 선정 (선거래 후반품)

9. 통합 학술 대회 및 상설 연수교육원

- ① 서울·인천지부 등과 함께 수도권 학술대회를 공동개최 추진으로 비용 절감 및 효율증대
- ② 한수 이남·이북(연수교육) 상설 연수교육 시설 설치

2006년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정기총회



권혁구 (9회)동문회회장

지난 5월 19일 오후 6시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정기총회가 시청앞 프라자호텔 22층 덕수홀에서 열렸다.

이날 본회 권혁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동문회는 향후 친목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통해 동문간의 유대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하고 “우리 모두의 동문회를 만들기 위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박범훈 총장은 치사를 통해 “약학대학은 지금까지 6,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정밀화학 및 첨단생명과학분야를 비롯한 의약품 분야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중앙대학교의 명성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고 “대학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좀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박범훈 총장을 비롯 이민원 학장,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권태정 서울시 약사회장, 고미지 한국여약사회장, 정춘희 부회장, 길광섭 경희대약대회장, 전영구 전 서울시약사회장, 이규호 서울대약대동문회 부회장, 정영기 총무, 성수자 덕성약대

동문회장, 윤명선 부회장, 김영자 숙대약대총동문회 부회장, 이옥준 숙대개국동문회장, 허순자 이대개국동문회장, 차도련 부회장, 곽순애 동덕약대동문회장, 장우성 성대약대동문회장, 김춘홍 조선대약대동문회장, 정재욱 영남대약대동문회장등 총회를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이어서 김영일 감사가 감사단을 대표해 감사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6년도 예산을 통과시켰고, 특히 내년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50년사 준비 및 기념식에 만전을 기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범훈 총장



이민원 학장



수상을 축하합니다!

〈총장 공로패〉

- 우정희(약 4회)

- 임상묵(약 8회), 세계로약국

〈총동창회장 공로패〉

- 윤원영(약 5회), 일동제약 대표이사

- 이성우(약 12회), 삼진제약 대표이사

〈학장 공로패〉

- 심재웅(약 12회), 정문약국

- 김명웅(약 14회), (주)서울컨벤션

〈동문회장 감사패〉

- 한독약품(고양명 부사장)

- 대웅제약(정난영 부사장)

〈동문회장 공로패〉

- 김형이(약 8회) 광명지부, 철산약국

- 윤건섭(약 19회) 관악지부, 우일약국

- 김용호(약 21회) 인천지부, 벨엘약국

- 이문성(약 24회) 인천지부, 부발약국

- 조석현(약 25회) 인천지부, 이조약국

- 이영준(약 26회) 성남지부, 새우리약국

- 오순용(약 26회) 안산지부, 월드약국

- 현기원(약 27회) 안양지부, 기원약국

- 최충식(약 27회) 수원지부, 웨미리약국

- 이 준(약 29회) 강남지부, 중앙약국

- 오세정(약 31회) 용인지부, 남서울약국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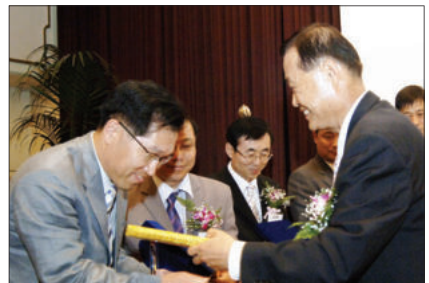
4



5

1. 총동창회장 공로패
2. 총동창회장 공로패
3. 학장 공로패
4. 여동문 감사패
5. 재직기념패
6. 동문회장 공로패

6



제 8 차 회장단 회의



△일시 : 2006년 7월 7일 오후 6시

△장 소 : 동문회관

- △안 건 : 1. 초도이사회 준비의 건
2. 약사회 현안의 건
3. 기타토의 사항

△참석자 : 권혁구 회장, 이근배, 박성학, 박호일, 유정사, 황공용, 김구, 심재웅, 문재빈, 박동규, 조길도, 임영식, 조찬휘, 허사길, 신상직, 장재인, 선우영환, 정명진, 조중형, 김경오, 이경옥, 김현태, 박기배, 이호선, 정찬현, 강희윤, 김형근, 유대식, 김영식, 박종화, 임준석, 박종화, 정덕기, 김승재, 최두주, 안희규, 양덕숙

고문, 자문위원, 감사단 회의



△일시 : 2006년 7월 12일 오후 5시

△장소 : 동문회관

△참석자 : 권혁구 회장, 김기홍, 오세형, 최종목, 김채윤 고문, 김영일 감사, 김창중 자문위원, 이경옥 여동문회장,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후보,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후보, 김영식 사무부총장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초도이사회



△일시 : 2006년 7월 21일 오후 6시

△장소 : 프라자호텔(덕수홀)

- △안건 : 1. 2006년도 사업계획의 건
2. 기타토의 사항

여동문 회의



- △일시 : 2006년 7월 21일 오후 5시
△장소 : 프라자호텔 (덕수홀)
△안 건 : 1. 경과보고
2. 2006년도 사업계획의 건
3. 동문회 홈페이지 활성화의 건
[동문회 홈페이지 www.caupharm.or.kr]
4. 기타토의 사항

장학기금위원회의



- △일시 : 2006년 8월 29일 오후 5시
△장소 : 동문회관
△안건 : 1. 2006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의 건
2. 동문회 회무보고의 건
3. 기타토의 사항
△참석자 : 권혁구 회장, 김기홍, 오세형, 최종묵, 김채윤, 임완호, 유영후 고문, 이민원 학장

제 9 차 회장단 회의



- △일시 : 2006년 9월 2일 오후 6시
△장소 : 동문회관
△안건 : 1. 동문워크샵 준비의 건
2. 모교의 날 골프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의 건
3. 기타토의 사항
△참석자 : 권혁구, 이근배, 박성학, 유정사, 서국진, 조길도, 조찬휘, 장재인, 이경옥, 정찬현, 김형근, 김영식, 정덕기

선·후배 동문여러분께 드리는 글



조 찬 휘 (15회)부회장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약 력

- 충북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한독약품 입사
- 한독약품 성북구 영업소 소장
- 성북구 수보은누리약국 개업
- 성북구약사회 총무위원장
- 성북구약사회 부회장(3회연임)
- 대한약사회 이사
- 현 서울특별시약사회 이사
- 현 서울시약 반품추진위원회 위원장
- 현 성북구약사회 회장(연임)
- 현 서울특별시 분회장협의회 회장

영동

지방엔 벌써 첫눈이 내렸다는 보도로 성큼 겨울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불규칙한 날씨일수록 동문 여러분의 귀엽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너무나 많이 부족한 저를 서울시 약사회장 중앙대 단일후보로 선출해준 동문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때 약속드린 모든 것들은 가슴에 깊이 간직하며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선·후배 동문여러분!!

의약분업은 약사사회에 일대변혁을 일으키며 벌써 시행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확고부동의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제도에 적응 못한 동료약사들이 하나 둘씩 우리 곁을 떠나갔고 적응한 약사라도 불용재고 의약품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방이 많은 약사나 적은 약사나 그 나름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TA나 법인약국 문제 등이 우리 회원들의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미의 현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약국경영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처방전 이외에는 모든 품목들이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회원들은 영웅 같은 리더를 고대하고 있지만 영웅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영웅 같은 리더는 현대사회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단, 리더가 역할을 잘해낸다면 영웅보다 더 유능한 집단을 만들 수는 있다고 합니다.

총체적 어려움에 빠진 약사사회에 영웅 같은 집단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바로 우리 중앙대 약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많은 동문회원들이 푹푹 뭉쳐 약사사회의 조타수 역할을 잘 수행해 낸다면 약사사회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패한 세력을 응징하고, 열심히 일하는 회직자를 응원하며,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을 배격하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해낸다면 우리 중앙대동문의 위상은 비상하리라 생각합니다.

“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려고하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주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여러분!!

저는 지난 20여년간 성북구약사회 총무위원장, 부회장3회연임, 회장연임, 서울특별시약사회 분회장 협의회장등으로 약사회에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회비를 아끼기 위해 집에서 점심을 하고 약사회에 가면서,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마무리 짓고자 했습니다. 성북구 약사회관을 5층으로 증축하여 월 600여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려 약사회 재무상태를 반석위에 올려놓았고, 분회 최초로 해외전지초도이사회 (태국 50명, 백두산 80명, 금강산 150명)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안목과 시야를 넓혔으며, 성북구약사회50년사도 발간하였습니다. 결코 어느 하나 손쉬울 것 없는 역점사업들을 독심을 가지고 마무리 지었으며 선배님들을 존경하고, 회원들과는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직능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의욕과 불만의 소지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젊은 약사회원들과 더불어 깨끗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매듭지었습니다. 저는 또한 항상 감사하며 살아 왔습니다.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참에 살고자 했습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직능인으로서 개국 26년 동안 약국은 6평에서 40평으로, 매출은 15배 신장한 성공한 약국으로 전문지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20여년의 약국경영과 약사회무활동에서도 최선을 다해 성북구약사회 선배자문위원들로부터 역대 최고의 활동가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소신 있는 당당함, 부단한 정진으로 약사권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약대 6년제 공청회장에서는 의사협회 임원들을 향해, 반품을 거부하는 제약회사에서는 임원들을 향해 저는 그들의 억지와 거짓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항상 열린 가슴으로 회무에 임해왔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추구하고 실현가능성을 따져서 유용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젊은 가슴과 열정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열린 회무 운영으로 약사회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약국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미래의 경쟁력을 고양시키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봉사와 열



정으로 더욱 높은 약사위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약사사회는 이른바 '지도자 유형'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위 수렴형지도자나 계도형지도자나에 관한 논란입니다. 계도형지도자는 회원들을 계도하고 국민들과 함께하여 약사이익과 국민이익의 절충점에서 회무를 하자는 주장이고, 수렴형은 회원들의 여론에 중점을 뒀서 강력하게 회원들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자는 회무론입니다.

저는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둘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수렴도 하고 계도도 하는 그런 회무를 펼치고 싶습니다.

국민과의 절충이 필요한 부분은 회원들을 계도하면서 이끌어가고 약사의 생존권과 관련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탁상위에서 머리로 하는 회무, 머리는 없이 거리에서 소리치는 회무 둘 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투쟁하고, 때로는 슬기롭게 타협하여 약사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약사회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는 각오를 밝히고자 합니다. 오직 약사, 오직 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앙대 약대동문회의의 임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임원을 이뤄낼 도구로 저를 써 주십시오. 이러한 저의 각오에 여러 동문 선배님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만 출사표에 갈음합니다.





‘기백’ 이 있는 약사회 박기배가 열어갑니다!

“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여러분께
경기도 약사회 부회장이며 고양시약사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약사회 지부장 중대동문
단일후보로 추대된
20회 박기배 인사드립니다. ”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문여러분!

3년 전 경기도약사회에 출마한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는 동문간의 격전으로 인해 아쉬운 패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3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또 다시 지난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총동문회에서는 지난 7월 후보 단일화를 전격 단행 하였습니다. 단일 후보로 저 박기배를 믿고 동문여러분이 내려주신 결정은 동문의 명예를 수호할 수 있는 저의 최대의 목표이자 과업이 되었습니다.

단일화가 당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의지가 수반됩니다. 이때 진정으로 끝까지 저의 곁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동문여러분의 힘찬 지지와 동참입니다.

우리 동문회의 후보단일화는 후보자를 홀로 광야로 밀어 보낸 것이 아닌 동문 모두가 이미 경기도약사회장 후보로 함께 출마한 것으로 믿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동문 한분 한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묵묵히 선배님과 후배님들의 변혁, 의지에 발맞추어 약사회의 발전을 연구하고, 회원의 고충을 이해하는 리더의 길을 정한지 오래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40여 년간 약권 수호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합니다.

그동안 의약분업 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동료약사들이 폐업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적응한 약사라도 불용재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방이 많은 약사나 적은 약사나 그 나름대로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TA나 법인약국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회원들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초미의 현안으로 등장 하여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약 력

- (현)대약 북약지도강사
- (현)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및 자치장
- (현)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 위원
- (현)고양시약사회 회장
- (현)경기도 약사회 부회장
- (현)고양시 행복한약국 개설
- 대한약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원 약학박사



당당한 약사! 골고루 잘 사는 약국! 소신으로 이끌어 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약국경영 활성화추진과 불용재고약 해결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둘째는 약대6년제 시행에 대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경기도 한수이북과 한수이남에 별도의 지역별 연수교육원을 설치하고, 연수교육 교재개발과 원격 동영상강좌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오래된 의지요, 결의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여러분!

셋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약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일관성 있게 계속하겠습니다. 시스템회무를 지향할 수 있는 집행부를 구성하고, 우수 분회의 회무를 벤치마킹하고, 각 분회 일선 분회장의 중지를 모으고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회무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약사회의 감사업무를 체계화시키고, 회계 관리를 투명화 하는 조치로 매달 수입과 지출을 이메일로 임원과 감사께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약사회 네트워크화를 추진하여 일선 민의를 수렴하고 업무능률화, 사무표준화를 이룩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입니다. 좁은 생각, 닫힌 문을 열고 협력하면서 저 넓은 상생의 세계로 자신 있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겠습니다.

넷째는 약권이 살아나서 회원 모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나게 하겠습니다. 성분명 처방 쟁취에 앞장서서 의사 처방권이 비대한 현실을 균형이 맞도록 꼭 개선하겠습니다.

대체조제 사후 통보 폐지를 실현 시키고, 포지티브 시스템 정착에 최선을 다해서 잦은 처방 리스트 변경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약법 중의 약법인 시민 포상제도 관계 부처와 힘을 합쳐 꼭 철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떳떳한 자존과 긍지를 바탕으로, 오늘 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는 핵심공약을 마음속 깊이 각인하여 회원의 고충을 회원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모두가 잘사는 약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사랑하는 후배, 동문 여러분!

이 같은 저의 구상을 밝히면서, 선후배, 동문 여러분에게 각별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약사 사회의 어른이자 변화와 개혁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했던 많은 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위대한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합시다. 그리하여 오늘의 결의가 새로운 도약을 이룩한 영광의 결과가 되도록 합시다.

저 박기배가 앞장서서 신명나게 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대전시 약사회 단일후보 **홍종오**



홍종오 (21회)부회장



제3회 전국복약지도 경연대회▶

약력

- (주)종근당 근무
- 대전 동구 삼성동소재 삼성약국 경영
- 현)대전 중구 대흥동소재 종오당약국 경영
- 대전광역시 동구약사회 회장
- 대전광역시약사회 총무위원장
- 현)대전광역시약사회장
- 법무부 대전서구 갯생보호위원 역임
- 대전·충남 적십자 자문위원
- 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 위원
- (사)대전언론문화연구원 이사
- 현) (사)대전언론문화연구원장 (디트뉴스24 운영)
- 현)한국스카우트연맹 대전·충남 부연맹장
- 현)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장(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장)

□ 출마를 결심한 이유와 캐치프레이즈

회무의 연속성으로 약사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활기차고 신나는 약사회를 만들어 안정적인 회무의 정착을 위하여 선거에 입후하게 되었고, 강력한 약사회, 존경받는 약사, 안정적인 회무운영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울 생각

□ 선거공약 및 정책은

- 안정된 약국과 탄탄한 힘 있는 약사회 구현
- 시민에게 존경받는 약사상 확립
- 약사회관 이전 건립 추진
- 약의 주권을 찾는 끊임없는 도전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관철
- 능력 있는 임원 발탁 및 업무분담으로 회무추진
- 분회, 반회의 활성화 및 동호인 적극 지원으로 회원회합과 약사와 약사회를 사랑 하는 회무운영 정착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인천시 약사회장 단일후보 **고석일**

**약사가 주인이 되는 약국,
약국 간 특화를 통해 시장을 키워 약사가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약국 경영 혁신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 약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전문 카운터 척결 및 약국 경영 활성화로 부자 약국을 만들겠습니다.



고석일 (30회)이사

약력

- 현)인천광역시 약사회 총무이사
- 대한약사회 대의원
- 인천광역시 약사회 교품물 운영위원장
- 인천광역시 약사회 팜카드 운영위원장
- 재인천약학대학생총연합회 회장
- 인천시 부평구 약사회 총무이사(9년 연임)
- 부평구 약사회 자율지도 위원장
- 남구 약사회 자율지도 위원

모름지기 여자든 남자든 허리가 튼튼해야 왕성한 활동력을 보입니다. 축구경기만 하더라도 미드필더(허리)가 부실하면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스트라이커가 아무리 천재성을 지녔어도 외롭게 맴돌뿐입니다. 이것이 조직의 생리가 아닐까 생각 해 봅니다. 어떤 조직에 있어서도 허리위치에 있는 존재들은 그 책임이 막대합니다. 상하를 연결하는 매개역할 없는 상하가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중앙대 약대에 입학해 약사라는 직업에 정착하게 되면서 가끔 제위치를 확인 해 봅니다. 중대 약대 동문회에서 내위치와 역할은? 나아가 약사회 내에서의 내위치와 역할은? 저에게 이질문은 간단치가 안습니다. 항상 동년배들보다 중요하고 무거운 직책을 수행 해 왔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인생의 중요한 기점에 서서 내위치와 역할에 대해 결론을 내려 봅니다.

그래! 내가 바로 허리다. 지넨던 지단처럼,호나우디뉴처럼... 동문회든 약사회든 선후배간의 유대관계가 예전 같지 못합니다. 지금 약사사회의 현실

을 보면 연령적으로 상부와 하부의 괴리감이 점점커져 두동강이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천시약사회 지부장선거에 입후보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후배약사들이 살아야 약사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젊은 후배들과 교감을 형성하고,그 교감을 선배약사님들에게 전달하고 소통시키는 일이 40대 젊은 회장의 역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부장 경선에 뛰어 들었습니다.

약사회의 미래는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해야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그 허리가 되려고 합니다. 관심있게 지켜 봐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워크샵(Workshop)

- 일 시 : 2006년 9월 9일 ~ 10일
- 장 소 : 오대산 관광호텔
- 참석자 :



김기홍(1회), 홍흥만(1회), 손동헌(1회), 이문규(2회), 정덕화(2회), 김상오(5회), 김채윤(5회), 이송학(5회), 오상오(5회), 김경희(6회), 임완호(6회), 김동렬(6회), 박정배(6회), 홍병석(6회), 안병한(6회), 권혁구(9회), 박성학(9회), 이근배(9회), 강근모(9회), 김주백(9회), 김학원(9회), 황태선(9회), 유정사(10회), 박호일(10회), 김창중(11회), 김미자(11회), 심재웅(12회), 강옥희(12회), 노덕재(12회), 박동규(12회), 엄계숙(13회), 문재빈(13회), 오영지(13회), 양인승(14회), 조길도(15회), 김명웅(14회), 김종렬(14회), 임영식(15회), 김승태(15회), 김용의(15회),

김윤빈(15회), 조찬휘(15회), 원장희(15회), 이영운(15회), 이인석(15회), 최영덕(15회), 이경옥(19회), 신성희(19회), 정찬현(20회), 이극선(20회), 이신규(20회), 유영내(20회), 임구래(20회), 박기배(20회), 홍종오(21회), 손의동(22회), 박상용(22회), 강희운(22회), 김형근(22회), 김영식(23회), 정덕기(23회), 함삼균(24회), 이재희(25회), 김준규(25회), 이만원(25회), 최두주(25회), 손영상(26회), 박영달(27회), 현기원(27회), 김영희(28회), 김은진(29회), 고석일(30회), 김성국(31회), 임성호(36회), 임중식(36회)



2006년도 동문회 필승워크샵을 지난 9월 9일에서 10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오대산관광호텔에서 개최하였다.

김기홍(1회) 고문을 비롯한 120여명이 성황리에 참석한 이날 권혁구 동문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우리 동문들이 더욱 단결하고 화합하여 모교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약사사회에도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일조 할 수 있는 동문회상을 구축하자고' 강조하였다.

'서울시 약사회와 경기도 약사회장 예비후보를 경선을 통하여 단일화를 이룩한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도전·필승·영광' 이란 주제의 강연에 이어서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박기배 경기도 약사회장 후보, 홍종오 대전시약사회장 후보의 인사와 필승을 다짐하는 화합의 장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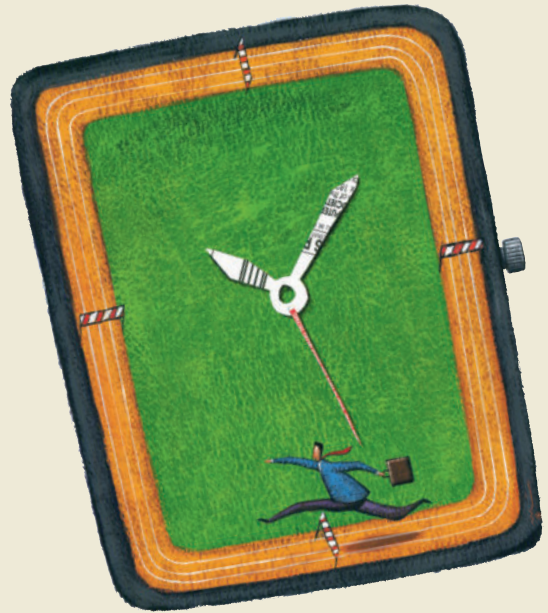
먹고 산다는 말이...



안 희 규 (28회)부회장
두하요코모리(주) 대표이사

“ 나는 내가 좋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외치는
나의 주문입니다. ”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안부를 물으면 “그저 먹고 삽니다”라는 답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안 먹고는 여지껏 살아 있을 수 없으니 정답이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갈 때 까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대학입시는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우리 집 중3, 중2는 밤 12시가 되어야 학원에서 집에 오고, 돌아와서도 숙제 하느라 매일은 아니지만 새벽 2-3시에 자는 것 같습니다. 한번은 아이들을 데리러 밤 12시에 학원가를 가보니 이시간이 아이들에게는 한낮이더군요. 그 제서야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떡볶이를 먹는 아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친구 그리고 서로 잡으려고 뛰는 놈들을 보니, 이 모습이 한창 자라는 아이들 모습인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하더군요.

아들 손을 잡고 집에 오면서 아직 얼마를 더 이런 짓을 해야 되나 생각하니 갑갑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나도 모르게 아들 손을 꼭 잡게 되더군요.

아마 중, 고생 자녀를 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은 똑같은 마음과 생각이실 겁니다.

한편 내가 옛날에 대학을 들어갔길 천만다행이지, 지금 같은 세상이라면 아마 약학 대학은 커녕 대학문턱에도 못가보고 인생의 다른 길을 걷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퍼

뜩 듭니다.

그리고 보면 오랜 삶은 살지 않았어도, 매 순간 순간 그 당시의 환경과 선택에 의해 삶의 길 인생길의 삼거리를 맞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군 입대 면제를 받으려고 기업체 중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나름대로 취업도 하고 국방의 의무를 하는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식지 않는 학학열에 박사과정을 빨리 들어가고 싶어,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남보다 짧은 군생활로 병역을 마치고 대학원 약제학박사과정에 입학 만 30세에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제 인생길에 큰 작전 하나가 성공하는 시기였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 후 제약회사에 입사하여 약사로서 연구개발, 학술 업무, 생산관리를 비롯하여 기획업무까지 배우며 최선을 다하여 약 8년간 진급도 잘해가며 약사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1992년 말은 제약업계를 떠나 철강제조업으로 삶의 길을 180도 확 바꾸는 제 삶의 길에 두 번째 큰 작전을 세우는 해였습니다. 주위 많은 분들은 잘나가는데 왜 그러냐며 약사로서 한 우물을 파야한다며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는 한 업무부서의 전문지식을 필요한 지식인인 것이고, 회사의 CEO는 아이টে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서 책임을 갖고 큰 배의 선장처럼 멋진 항해를 잘해야 하는 마도로스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또한 직원이 아닌 경영자로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회사전체 직원들과喜怒哀樂을 함께하며, 더 멋진 항해를 하도록 배도 더 좋게 만들고, 아름다운 여행지도도 만들어가는 아주 이상적인 꿈을 안고 출항을 하였습니다.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때 생면무지인 분야에서 참 철없이 보이기도 했고, 무모해 보이기도 하게 도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제약업계에서 하던 열정과 엄마 배속에서 부터 받은 숨은 저력을 바탕으로 철없이 무모하게 돈키호테 처럼 앞만 보고 달린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일보다는 남이 안하는 일을, 기왕에 할 것 이라면 남보다 낮게 한다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아직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 있지만, 늘 기쁜 마음과 정렬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기 위한 두 번째 작전

이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법 이 분야에서 전문가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대한건축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철강업계토론회에 패널로도 참석합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그리고 특허청장 특허 대상등 대학교 다닐 때 받지 못한 큰상들도 받았구요, 세계 수십 개국을 방문하여 안목을 넓혔고, 일본 회사와 기술 제휴도 맺어 수시로 방문하며 어느 때는 일본에 아침에 가서 점심 먹고 오후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고 산다는”말만 하려고 저희 아이들이 밤 12시가 넘도록 공부하고, 제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나 생각을 하여 봅니다.

글쎄? 아닐세 입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작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최근 대박을 터트린 영화“괴물”과 비교가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기회가 되면 새로운 작전의 성공 소식을 꼭 전하겠습니다.



근래 제가 노래방가면 부르는 노래가 나훈아 “공(空)”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라톤 42.195Km도 뛰어 보았구요, 지금 제 옆에는 사랑스런 여 약사가 늘 함께 합니다.

동문여러분!

건강하게 살맛나게 오래오래 좋은 일 많이 하며 삽시다.

제20회 졸업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신 규
(20회)동기회장

존경하고 뵈고 싶었던 한덕용, 김종갑, 김일혁, 손동현, 이광표, 홍순각, 허인희, 신화우, 임철부, 김창중 교수님 또 권혁구 약학대학 총동문회 회장님 및 이경옥 여동문회장님, 이민원 학장님을 모시고 72학번 졸업30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되어서 떨리는 마음과 감회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해 주시고 약사라는 천직을 갖게해 주신 교수님들께 우리 72학번 동기들 모두는 졸업30주년을 맞이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인연을 갖고 이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중앙대 약대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뛰는데 하물며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수님 아래 공부한 우리동기생들이야말로 인연 중에도 가장 귀중한 인연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끓을래야 끓을 수 없는 끈으로 묶여있는 그런 사이가 아닐까요?

이러한 우리들이 단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이핑계 저핑계로 무관심으로 서로 방치해 왔습니다.

이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보기가 싫어지지 않습니까? 얼핏 스치는 감출 수 없는 주름과 흰머리를 바라보며 거울에서 눈을 돌릴 때가 많아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뒤를 한번 돌아보는 삶을 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 때문에 어느 여자동기생에게 전화를 했더니 더 늦기 전에 자주 만나자며 더 늦어지면 주름살과 흰머리 때문에 만나기가 쑥스럽다고 했습니다.

동기동창만남에 할아버지면 어떻게 할머니면 어떻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30년 전의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파이프 홀의 유화수소냄새, 연못시장의 막걸리맛, 칠성당구장, 안동장 중국집, 재시협 등등 정말 우리들은 많은 추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다시 한번 뭉쳐봅시다.

선후배들 모임에 가면 그래도 20회는 가장 잘 모이는 기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 친구들은 분기별로 모임을 갖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현재 20~3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단위 모임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보고 즐거울때 같이 즐거워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도와주고 밀어주는 동기동창회가 되기 위해서는 동기생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단합을 해야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모든 동기들이 회비를 납부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보여주신 동기분들의 열의와 정성이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부산, 속초, 전주, 대전, 원주 등 전국 각지에서 불원천리 달려온 친구들과 행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준비위원들과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기회가 되는데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건강하시고 하시는일 만사형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친구야! 보고 싶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금강산여행을 다녀와서...



강 희 윤 (22회) 부회장

한때 철의 장막이라는 소련보다도 더 철용성이라는 폐쇄지역 북한때문에 금강산을 한번만이라도 보면은 한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다.

누구의 주제권기 / 맑고 푸른 산 / 그림 다시부를 우리 금강산 / ... 수수만년 이름다운 산 / 못기본-지 몇몇애/중략...의 금강산 노래를 부르며 에티게 금강을 그려던 시절들...

하지만 소떼가 바리바리 휴전선을 넘어가고 부터는 더 이상 금강은 못내 가고픈 산하는 아니었다. 조금 어렵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토록 보고파하던 금강과의 만남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동문회에서 “금강산”을 간다하니 이 기회를 놓칠세라 기대감을 부풀렸지만 이일저일로 핑계가 되고 갈 수 없는 지경에 처했는데.. 아뵐사!! 권혁구회장의 리더십이 공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도저히 NO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인맥을 동원하여 강권(?)을 발동하시니... 못이기는 척 이 몸 금강

을 만나러 짐을 꾸리게 되었다.

6월2일 대약회관앞- 출발시간 5분을 늦었는데 대선배님들의 애정어린 꾸중이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역시 대 중앙인이어서 그런가 조금의 지각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선배님들. 고개 꾸욱. 그리고 2시간을 쥐죽은 듯 가다가 양평휴게소에 잠시 쉬면서부터 선배님(후배들 보다 더 많으시다)들께 일일이 인사를 드리니 모두들 화안하게 미소로 답해주신다. 사모님들도 함께 오신 분이 많았는데 결혼조건이 “미인이어야한다”는 조건이였는지 모두들 예쁘고 품위들이 있으셔서 같은 중앙인으로 가슴이 뿌듯해졌다.

버스타고가면서 자리엎, 앞, 뒤에 앉은 동문님들과 이야기 꽃을 피우노라니 금강을 만난다는 설레임은 잠시 뒤로했다. 밤빛이 온 들녘에 물들이고 안개비가 촉촉이 내리는 고성바닷가 어촌에 도착하였다.

“와 바다다-” 탄성이 울리는데 바다구경은 잠시 미루어두고 일단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처럼 미리 예약한 음식점으로 모두들 들어갔다. 왁자지껄, 한잔 ~한잔, 자연산 회와 함께 웃음꽃이 피고 짐을 떠나와서인지 더욱 더 정들이 깊어지는 듯 일어설 줄을 몰랐다.

첫째날 밤, 금강산콘도에서 여정을 풀고 3회, 7회 여동문님 두 분과 박실장, 이렇게 넷이서 잠을 이루었다. 하지만 가까운 곳이 북한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집에 두고 온 가족때문인지 아니면 낮에 많이 먹은 커피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아 밤을 하얗게 밝히고 말았다.

| 특별기고 |

6월 3일, 일찍감치 조식을 먹고 '여기부터 북한입니다' 라는 조장(이북에서는 가이드를 이렇게 부른다)이 선생의 말소리를 시작으로 핸드폰 수거 신상카드준비 등으로 여기저기 부스럭거리며 출입사무소에 도착했다. 1800명이 오늘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는데 버스가 줄지어서 출발하여 북측 사무소에 도착하여 일렬로 기다리는 데 북한이라는 실감이 슬슬 들게 북한군이 왔다갔다했다.

"M동무! 이 사진 언제 찍었습니까?!"

날카로운 소리에 우리 일행 모두는 아연 긴장을 했다. 내 앞줄 세번째 M선배님한테 북한군 한사람이(비쩍마르고 얼굴이 시커멓게 기미가 끼고 눈이 독사처럼 생긴) 심문을 하듯 몰아세웠다.

M선배님이 "6개월정도 되는데요.."하며 말꼬리를 흘리는데 "동무래, 와 거짓말합니까? 여행사에서 기리케 시켰습니까?"

아무말도 못하고 M선배님 맘을 뻔뻔흘리는데 "같은 동포끼리 거짓말하면 됩니까?" 계속 닦아세웠다.

"기리케 거짓말하지 마시라우.. 저쪽으로 가 벌서라우" M선배님이 한쪽 권으로 서있으며 우리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8년전 사진을 낸 나도 차례가 되자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이 되었다. 다행이 아래 위로 나를 훑어 보더니 도장을 찍어주었다. 우리 일행 60명중 4명이 사진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 모두 벌금 100달러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어쨌든 약간은 으스스하고 썰렁한 분위기속에서 버스는 북한 땅안으로 점점 들어갔다. 남한땅과 다르게 산마다 민동산에 나무라고는 하나도 없이 밋밋하여 놀랐고 그야말로 햇빛은 산하라고 해야 할 듯 싶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산 꼭대기에 군인 한명이 빨간 기를 들고 피악벌아래 차렸자세로 서 있는 것이었다. 그렇잖아도 얼마전 군에 아들을 보내 항상 군인에 대한 연민이 있었는데 아무리 북한군이라지만 어미마음으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얼마나 햇볕이 뜨거울까 그늘도 없는 곳에... 십여분 정도 지나 서인가 옥수수밭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옥수수밭 잡초밭이었다. 사회주의국가라서인지 아니면 사유재산을 인정받지 않아서인지 열심을 내지않아 북한이 점점 못사는 나라가 되는 것 같았다. 황량한 들판에 논도 없고 집들은 다 쓰러져가고 회색빛으로 퇴색한 우리나라 60년대 식의 블록집이 몇 채 다닥다닥 붙어서있다.

금강산에 가까울수록 군인들의 초소가 나타나고 마을이 나타나는데 담이나 문앞에 커다란 빨간 글씨로 공산당 선전문구나 개인송배 또는 찬양글귀가 섬뜩하게 쓰여있었다. 짐을 차에 그냥 실어둔 채 구룡연등반에 나서게 되었다. 어젯밤 잠을 설친 탓인지 몸에 기운이 없고 과연 잘 오를 수 있을지 걱정이되었다. 산행시간은 약 2시간 잘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상팔담까지 갔다올 수도 있다고 하였다. 산사나이처럼 발이 빠른 KT, KS선배 두분은 이 미 일행을 한참 앞서갔다. 나도 그 명승지인 상팔담을 가볼까 하

고 두분을 따라갔는데 도저히 쫓아 갈 수 없어 그냥 내 페이스대로 가기로 했다.

휴지를 버리거나 침을 뱉으면 10달러 또는 등산로를 벗어나도 벌금이라는 말때문인지 산을 오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야말로 모범생처럼 산을 올랐다. 산의 나무는 우리 남한땅 나무와 거의 같고 물빛은 설악의 계곡을 닮았다. 하지만 애써 다름을 찾았다면 물빛이 더 청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르는 입구 미인송이라는 소나무의 향내를 맡으며 한걸음 한걸음 올라갔다.

"양지대"에서는 옥빛물들이 힘차게 흘러가서 일행들의 발걸음을 잡고, 기기묘묘한 주변 바위와 비취빛이 어우러져 역시 금강의 아름다움이란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구나하는 마음이 드는 "옥류담"과 한모금 마시면 10년은 젊어진다는 산삼과 녹용이 녹아흐른다는 "삼록수"를 마시니 웬지 몸안에 노폐물을 다 씻어내는 것 같았다.



작아지른 바위위에서 춤추면서 봉황이 내려오는 것을 연상시킨다는 "무봉폭포" 물안개가 햇빛에 반사되어 무지개가 뜨는 "비봉폭포"의 웅자를 지나면서 역시 금강이 회자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커다란 바위에 써있는 사상에 관한 빨간글씨를 보더니 Y 선배님이 국민학교때 인민군치하에서 불렀던 "장백산이 ~..."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그당시 빨갱이치하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며 6.25 당시 돌아가셨다는 할아버지를 아쉬워하며 잠깐 숙연해했다. 좁고 가파른 길을 나뭇잎의 향긋한 내음을 맡으며 맑고 깨끗한 계곡물을 따라 올라가니 골짜기에 커다란 담이 검푸른 듯 고여있고 그 위로 폭포가 마치 긴 용틀임처럼 흰빛물줄기로 쏟아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3대 명폭중의 하나인 구룡폭포였다.

수많은 시인들과 화가들이 이 절경중에 절경을 노래와 시로 표현하였다 할 정도로 멋진 이 폭포는 도대체 어디에서 물이 저렇게 모여 흘러내리는 것일까하는 의아심이 들정도였다. 하늘에서 물탱크를 마구 쏟아내는 것일까?!... 최치원은, 70미터를 쏟아지는 "만섬진주알"이라고 했었는데 번개같은 반짝거림과 천둥소리 때

문에 그랬을까?!

구룡연에서 삼삼오오모여서 사진들을 찍고 정겨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숲 속 오솔길을 걸어 내려왔다. 현대가 운영하는 온정각에서 그 곳 마을 청청지역의 채소 등 유기농산물로 된 반찬으로 맛있게 식사를 했다. 금강산 관광은 천에서 온천을 하고(시설이 참 안락하고 좋았다) 자꾸만 피로가 몰려 오는데 평양교예단이 펼치는 서커스를 보려갔다. 어릴 때부터 훈련을 거듭해서일까 상상할 수 없는 기예를 펼치는 모습이 놀랍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공연을 보았다.

금강산관광호텔에서 만찬을 갖고 한꺼번에 모여 중앙인의 단합을 다지고 담소를 나누는데 금강산의 밤은 깊어만 갔다. 몇몇이 호텔밖을 나와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별들이 초롱초롱 맑게 빛나고 공기는 쨍하니 청량했다.

다음날 아침, 산행준비를 하고 만물상으로 오르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몇분 선배님들은 천전대 근처에서 머물고 대부분의 동문들은 한걸음 한걸음을 옮기며 독수리바위 아기곰바위, 개구리바위, 탱크바위 등 어느 시인이 “우주를 빛은 손이 세상의 만물을 금강에 새겨놓았다”라는 말처럼 금강에 만물상이 있어 비로소 금강이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북한 안내원 아가씨를 보고 PY선배님이 “아가씨 미인이네요!” 했더니, 그 아가씨 왈 “선생님 또 남남북녀 이야기 하실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남쪽선생님이 미남이다 그이야기 하실라고 그러시지요” 하길래 내가 “아가씨 어쩔 그렇게 이야기를 잘해요!” 했더니 “다아 남쪽선생님들이 가르쳐주었지요”하며 방글방글 웃어서 우리들이 모두 실소를 머금었다.

만물상은 그야말로 1800명이 한꺼번에 몰려 돛때기시장 같았다. 정해진 등산로를 따라 일시에 한꺼번에 오르니 외글와글 바글 바글. ‘이런 등반은 진정한 금강등반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천하의 제일 명산 금강을 올랐다는 긍지와 보람이 드는 것은 나만이 아닌 듯 모두들 얼굴은 뿌듯 해보였다.

만물상을 내려와 점심식사를 하고 삼일포로 향했다. 옛날의 왕이 하루만 절경을 보려왔다가 그 곳이 너무 아름다워 삼일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살랑살랑 바람에 물결이 잔잔히 밀려오고 정자가 고즈넉함을 전해주는데 안내하는 북한남성이 우리들의 요청으로 멋들어지게 노래를 불러 그 순간만은 남과 북이 마치 하나가 되는 듯한 동질감을 느꼈고 노래가사가 간절히 통일을 원하는 것을 보고 남한 사람보다 북한사람이 통일을 더 원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하며 우리 민족과 통일이라는 원대한 개념을 일순 떠올리며 웃음을 여몄다.

어느덧 우리 일행은 서로를 ‘동무, 동무’ 하며 약간은 장난기가 섞인 듯 또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것처럼 정이 듬뿍들은 듯 말을 했고 서로간에 더욱 친근감이 들고 있었다.

다시 온천을 하고 몇몇 동문끼리 시원한 맥주를 들던 시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그 때 맥주값을 내신 SW부부선배님! 지면을 빌어 감사해용^^* ㅎㅎㅋㅋ)

온정각으로 돌아와 점심식사를 하고 약간의 쇼핑시간을 가진 후 시원섭섭한(?) 금강산 방문을 끝내고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출발하려는데 일행중에 두 선배님이 안보이시는 것 아닌가. 몇 사람이 뛰어다니며 찾아도 보이지는 않고 버스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닌 북한이 지시하는 대로 정해진 시간에 출발을 해야하는데...

한참을 찾아도 오시지를 않아, 버스는 그냥 출발하고 말았다. 그 중의 한 선배님 부인은 걱정이 태산 같은지 어떻게든 해보라고 동동 발을 구르고 어떤 선배님 왈 “북한으로 월북이라도 한 것 아냐” 해서 모두를 심란하게 만들었다.

출입사무소에 도착하고 한참 후 두 선배님은 마지막 버스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안도하게 만들었고 일행들 모두한테 싫은 소리를 한 바가지씩 들었다. 두 분 중에 한 분인 PS선배님은 특유의 너스레를 부리시면서 식당에 조개구이가 있어 맛있게 먹느라고 그랬다...

출입사무소에서 수속을 하는데 들어갈 때 무섭던 그 군인이 한쪽에서 왔다갔다해서 한참을 긴장을 하는데 내 수속을 해주는 군인이(아마 남한에서 살았으면 한 미남했을 해사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자랄 때 못 먹어서 젓가락처럼 말랐다)

만면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약국이름이 맑은샘입니까?”

“네, 그런데요.”

“그 약국가면 아픈 사람들이 모두 낫겠습네다, 그러.”

“감사합니다.”

나도 활짝 웃으며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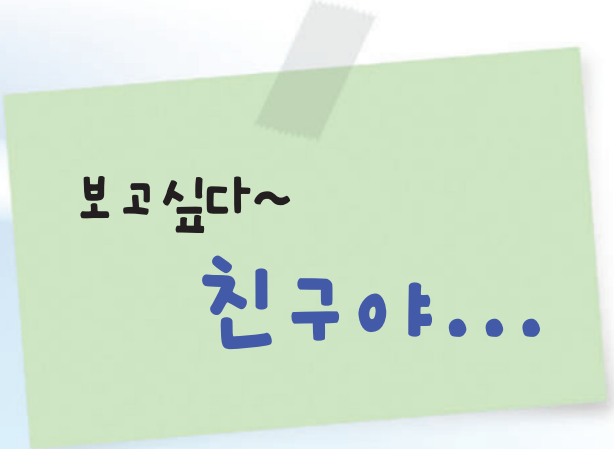
“저요? 제 이름은 금강산 맑은샘입니다.”하는 것 아닌가.

그 군인과 나는 서로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

마치 남과 북이 서로 동포애를 나누듯이 ...



이 내 흥 (25회)동기회장



추석명절을 보내고 낙엽이 쌓이는 2006년 가을.

입학 30주년, 졸업 25주년이 되었다니 과거 학창시절이 그리워지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70년대 3공화국 유신정권 말기에 데모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약대생들은 고등학교때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업 외에도 씨클활동, 운동, 연애 특히 술, 담배 등으로 말입니다.

저희 25회 동기 중 사회여러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동기도 있습니다. 한성주, 강전국, 김영진 동문이 병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이민을 가서 그 나라 약사면허를 딴 심창섭, 한재호, 이동규 등이 있습니다.

입학 20주년 때 만났지만 다시 보고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문수학한 친구로서의 우정이 아닐까요?

현 25회 동기회장인 이내흥(수원시 약사회장), 이민원(중대 약대학장), 김광호(식약청 생물약품관리팀장), 고성권(세명대 교수), 조석현(인천시 약사회 부회장)과 제약계에는 이기봉(삼일제약 연구소장), 김태원(서흥캡셀 이사), 이광인(BMI Korea 부사장), 이재희(알파약품 대표), 조순현(HV Pharm 부사장), 김용빈(메디카코리아 이사), 김영식(한서제약 전문이사) 등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약업계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모든 동문들이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50대가 되어버린 동문들을 만나서 느끼는 것은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새삼 피부로 느껴집니다.

끝으로 중앙대학 약학대학의 발전과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보고싶다 친구야...





여기서도~ **저기**에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찍고...**



김기명 (18회, 본지 편집위원)



최근

개국가에서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개국 약사님들이 취급 하고 있는 제품 중의 하나가 “오메가 3”제품이다.

“오메가 3”제품의 주요 구성 성분은 EPA와 DHA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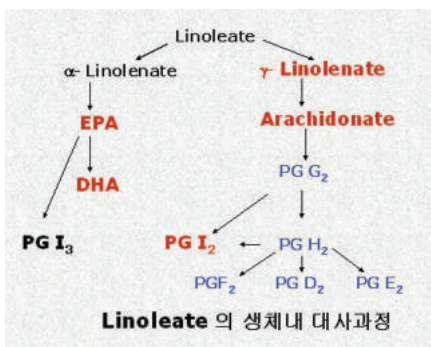
우선 어류 중 EPA의 존재가 알려지게 된 것은 덴마크령인 그린랜드에 거주하는 에스키모인이 북극의 춥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 바다 생선과 바다표범, 물개 등을 주식으로 섭취하여 총 칼로리 중 지방이 35~40%의 고지방 식생활을 하면서도 스테이크와 버터 등을 즐겨먹는 덴마크 거주 에스키모인에 비해 심근경색, 동맥경화, 뇌경색 등의 순환기 질환 및 사망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에 대한 덴마크 의학자 다이버그 박사와 싱클레어의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역학 조사 연구 논문이 발표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EPA는 전갱이, 참치, 고등어, 정어리 등 등푸른 생선의 지방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EPA의 기능성은 혈액중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저하작용과 혈압강화작용 및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등푸른 생선의 섭취를 통해 EPA를 많이 섭취하면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개국가에서는 임상적으로 심장질환, 고혈압, 노인성치매증, 시력의개선, 관절염, 천식 및 당뇨병 합병증 예방에도 사용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의 한 소재이다.

오메가 3 제품의 응용

이 현 수 (27회)동문



EPA의 생리적 기능은 Prostaglandin을 생합성하기 위하여 EPA가 전구체로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참조, Linoleate의 생체내 대사과정).

본인의 임상 활용 예를 소개해보면, 40대 이상 성인에서 고혈압이면서 (혹은 정상 혈압이더라도) 뇌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메가3 제품과 항산화 비타민제를 병용 투여하여 좋은 결과를 보았으며, 중 고등학생의 수험생 혹은 각종 고시공부를 하여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오메가3 제품과 레시틴제품을 함께 복용토록 하여 복용 후 약15일 이후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 향상 및 집중력이 좋아져 수학 문제 등이 잘 풀리고 이해력도 많은 향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를 많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40대 이상의 성인에서 관절염골 및 시력개선의 목적으로 오메가3 제품과 글루코사민 제품을 함께 투여하여 무릎에서 소리 나는 증상과 무릎 통증 및 눈이 시원하게 맑아졌다는 고객들이 많았다.(물론 소염진통제는 복용 하지 않고서)

여러 동문님들의 약국의 형편에 맞게 일반의약품을 가감하여 투약하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무더운 여름에 선·후배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최 병 철 (21회) 동문
 약학박사 미 캘리포니아주 약사
 중앙대 영남대 겸임교수
 약사교육연구소 소장



혈관신경비염이라고도 불렀던 알러지성의 급성 비강카타르인 알레르기성 비염은 결막염, 때로는 천식까지 동반한다. 카타르는 조직의 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심출성염증을 뜻하며 카타르성염증이라고도 한다. 알레르기는 인체가 이물질을 없애려하는 과잉반응이다. 인체는 이물질(항원)이 외부로부터 침입하면 이것을 이물로 탐지해 항체를 생산한다. 다시 같은 항원이 몸속에 들어오면 준비된 항체가 그것을 인식해 일제히 공격한다. 이런 반응으로 인체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제거하여 인체를 지키는 작용이 면역이다. 그러나 이런 반응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여 각종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알레르기이다. 알레르기 질환중에서도 유전적인 요소가 강한 것을 아토피 질환이다. 알레르기성 비염도 아토피 질환중의 하나로 선천적으로 항체를 만들기 쉬운 체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아토피체질이라고 해서 반드시 아토피질환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병태생리 | 감기에 걸린것도 아닌데 발작성의 재채기와 콧물 그리고 코막힘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이런 증상은 아침 저녁으로 심하게 일어난다. 그것은 자율신경의 밸런스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으며 양자가 균형을 좋게 유지함으로써 인체의 건강이 유지된다. 낮에 활동할 때는 교감신경이 활약하고 밤부터 새벽까지 쉼때에는 부교감신경이 활발히 움직인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은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위를 차지할 때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그 증상이 심해지기 쉽다. 겨울에 악화되기 쉽다. 재채기는 알레르기성 비염

은 콧구멍속을 덮는 점막에 부착하면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켜 점막의 비만세포 등에서 히스타민과 류코트리엔 등의 화학물질이 방출된다. 이 자극이 재채기 중추에 도달해 호흡기근육을 작동시켜 재채기가 연발된다. 환자의 코점막을 살펴보면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활발해진 반면에 교감신경의 활동이 둔화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교감신경으로부터 분비되는 물질(노르아드레날린)은 히스타민 등의 화학물질 방출을 억제하나 부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히스타민분비를 오히려 촉진한다. 이 때문에 환자의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이다.

콧물이나 코막힘은 방출된 히스타민이 지각신경을 자극하면 그 자극이 분비중추에 도달해 분비선에 작동함으로써 많은 콧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 없다. 한편 히스타민은 코점막속의 혈관에도 직접 작용해 혈관의 확장이나 순환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코의 점막이 부어올라 험하게됨으로써 코막힘을 야기한다. 히스타민에 비교하면 그 작용이 약하지만 지속성이 있으므로 이런 증상이 일단 발생하면 오래 걸린다.

원인 |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흡입성 항원 = 공기 중에 존재하며 호흡에 의해 체내에 들어오는 것)은 약 60%가 집안 먼지나 진드기, 애완동물의 털 등이며 약 30%가 꽃가루이고 나머지 10%가 곰팡이 등이다. 집안먼지가 원인이 되어 알레르기가 일어날 경우 창문을 밀폐하고 난방을 하는 겨울에는 항원이 항상 날아다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겨울철의 공기건조도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발생 | 어린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아토피성질환은 아토피성피부염과 기관지천식,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등 세가지이다. 기관지천식은 기관지의 근육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경련상태에 빠진다. 나아가서 점막이 붓게되고 기관지가 좁아짐으로써 폐에 대한 공기의 출입이 나빠져 호흡이 힘들어지는 질병이다. 이런 질병의 증상은 개인차가 있는데 보통 젖먹이 유아기에 나타나는 것은 아토피성 피부염이다. 2~3세가 되어 아토피성 피부염이 사라지면 기관지천식이 나타난다. 이어서 초등학생쯤 되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생한다. 그러나 아토피성 피부염에 걸린다고 반드시 알레르기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부터 인후통이나 발열, 기침, 권태감 등의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그러한 변화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네번째, 감기의 콧물은 초기에 투명하고 묽은것이 증상진행에 따라 하얗게 혼탁해지고 끈적거리는 점착도가 증가한다. 한층더 증상이 악화되면 콧물은 황색과 녹색이 감도는 점액으로 변한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콧물은 늘 투명하고 멀겁다. 비강의 점막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질병인 만성비염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혼동하기 쉽다. 혈관운동

진단 | 이비인후과에서는 우선 코속 점막을 진찰함으로써 알레르기성 비염인지의 여부를 진단한다. 건강한 사람의 코점막은 옅은 핑크색이지만 급성비염은 빨갛고 알레르기성비염 환자는 창백하며 점막이 상당히 부었거나 콧물이 점막주변을 덮고 있는 상태이다. 특이성 IgE 항체검사는 채혈해서 항체종류를 조사한다. 호산구 검사는 콧물을 채취해 알레르기성비염 환자에게 많은 호산구라는 세포의 유무를 조사한다. 패치테스트는 각종 항원의 엑스를 코의 점막에 발라 어떤 항원으로 인해 증상이 발증하는가를 조사한다.

종류 | 알레르기성 비염은 계절성과 통년성으로 구분되며 일단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급, 만성 비염과 기타 원발성, 직업성, 약물성, 음식물, 위축성, 홀몬성, 자극성, 정서적으로 인해 발병하는 비염과 감별되어야 한다. 화분증은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중의 하나인 꽃가루를 흡입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중의 하나이다. 꽃가루가 휘날리는 계절에만 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도 한다. 화분증의 증상은 눈의 가려움증이나 결막(눈의 흰자위 부분) 충혈 등을 수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흡입한 꽃가루가 몸속의 점막에 붙으면 몸속에 장애가 생기고 피부에 묻으면 살갓이 거칠어지며 입속에 들어온 꽃가루를 마시면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알레르기성비염이나 화분증이 모두 체질과 관련이 있으므로 완치하기 어렵지만 그 원인을 차단하거나 멀리함으로써 증상을 경감할 수 있다.

증상 | 첫번째, 코감기 초기증상과 알레르기성 비염의 3대증상, 즉 재채기 콧물 코막힘은 동일하다.

두번째, 감기의 경우 이런 증상이 1주일내지 10일 지나면 가라앉지만 알레르기성 비염은 항원이 존재하는한 계속된다. 세번째, 감기의 경우 증상이 변화한다. 재채기, 콧물, 코막힘으로

성 비염은 발작적인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등의 증상은 알러지성 비염과 같지만 이것은 급격한 온도차이로 생기는 비염이다. 자율신경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코의 점막이 과민반응을 일으켜 증상이 나타난다.

감별질환 | 만성비염은 비강의 점막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질환으로 알레르기성 비염과 혼동하기 쉽다. 이 병은 코감기의 되풀이나 코감기가 오래 끌면서 생기는 케이스가 많다. 증상은 콧물, 코막힘 등이다. 혈관운동성 비염은 발작적인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등의 증상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같지만 이것은 급격한 온도차이로 생기는 비염이다. 자율신경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코의 점막이 과민반응을 일으켜 증상이 나타난다. 비폴립은 코속 점막의 일부가 부어서 들뜬뒤 버섯처럼 돌출돼 가는 병이다. 비폴립 치료는 주로 외과절제수술에 의존한다.

치료제 선택시 주의사항

- 언제부터 시작하였는가를 알아보고 치료기간은 1주일 정도로 정한다.
- 가래의 유무를 알아본다.
- 가래가 어떤 형태의 가래인가 알아본다.
- 양이 많고 냄새가 나거나 피가 섞인 가래인 경우 병원을 찾도록 한다.
- 일반적인 기침소리가 아닌 경우 병원을 찾도록한다.
- 기침가래외 환자의 건강상태 예를들어 임신, 수유, 질병(생활습관병) 등을 필히 알아본다.
- 현재 복용하는 약물에 대하여 알아본다.
- 과거 기침가래 치료시 어떻게 하였는지 약을 복용했다면 효과적이었는지 또 부작용이나
- 알러지 등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5월 26일 중랑구지부 모임 오후 9시



6월 10일 부산지부 정기총회 오후 7시



▶ 6월 17일 서울시약사회장 단일화 경선대회

• 장 소 : 대한약사회관 4층

▶ 6월 29일 경기도약사회장 단일화 경선대회

• 장 소 : 수원시 약사회관

▶ 6월 23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발전기금 위원회 7시

• 장 소 : 식도원

• 안 건 : 약학대학 발전기금 현황보고의 건

• 참석자 : 권혁구 회장, 임상목 고문, 최영욱 교수, 이민원 학장

8월 22일 중구지부 모임 오후 7시



9월 5일 은평구지부 모임 오후 8시



9월 13일 강서구지부 모임 오후 10시



9월 20일 구로·금천지부 모임 오후 8시



9월 20일 송파지부 모임 오후 10시



9월 22일 안양지부 모임 오후 10시



9월 23일 노원지부 모임 오후 10시



11월 2일 강동지부 모임 오후 10시



인 사 박찬희 (11회) 이사

오산노인전문병원 약국장 ☎031-370-2300
경기도 오산시 권동 543-1

결 혼 10월 21일 이신규(20회) 이사 자녀결혼

10월 22일 손승언(9회) 이사 자녀결혼

부 음 9월 5일 한석원(8회) 자문위원 부친상

9월 22일 이종건(13회) 동문 별세

9월 27일 조석현(24회) 이사 부친상

10월 11일 최남규(8회) 동문 별세

11월 5일 권희덕(4회) 동문 별세

※부음시 동문회로 연락주시면 근조기를 설치해드립니다.

동문회 50년사 편찬을 위한 자료 및 사진을 모집합니다.

내년이면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가 창립 5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문회에서는 지난 50년을 정리하여 앞으로 다가올 희망찬 내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이정표로 동문회 50년사를 편찬하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가지고 계신 사진이나 기록 또는 유인물을 제공해 주시면 동문회의 살아있는 역사를 만드는데 크게 보탬이 될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작은 자료라도 보내주시면 큰 역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 (테헤란오피스텔 1309호) TEL, 02)565-1700 / FAX, 02)564-1701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홈페이지 개설

지난 8월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하시어 동문상호간에 활발한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디는 본인 이름이고 패스워드는 약사면번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안되신 동문님께서서는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 www.caupharm.or.kr

동문회비 및 기금납부자

(2006년도 5월 19일 ~ 10월 30일)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회장단 (240,000원)												
권혁구	9	노인배	3	안병식	13	김수명	4	이복환	8	왕문화	13	
이근배	9	최종순	3	윤대양	14	홍범수	4	곽유철	8	김태건	13	
박성자	9	오세형	3	조양기	14	오영아	4	문홍수	8	이종근	13	
최인선	9	천호훈	4	이명숙	15	이화석	4	김복근	8	이용성	14	
황태일	10	이효명	4	박원봉	15	이경갑	4	유성재	8	정영표	14	
박호성	10	김명섭	5	김형준	15	임순회	5	정홍우	8	김진행	14	
유정공	10	김영배	5	윤의준	15	조복원	5	김진희	8	이재조	14	
김공우	12	임완호	6	최광식	16	김원전	5	장성익	9	이병조	14	
심재우	12	박정배	6	권령복	16	강희봉	5	이호성	9	최종택	14	
이문빈	13	류상성	6	강명채	16	김을경	5	권오성	9	유효수	14	
박동규	13	안성기	6	주완표	17	임태일	5	김영창	9	이희성	14	
서국진	13	김인혁	6	양희천	17	강보연	5	한정희	9	이성철	14	
김종렬	14	김희일	6	김재경	17	전상홍	6	최백현	9	이호분	14	
조길도	14	서영규	7	김상속	18	양현호	6	김명자	9	이혜경	14	
임영식	15	한철덕	7	여운동	18	이성훈	6	이주호	9	김대우	15	
조찬휘	15	김영일	7	오상내	20	유승균	6	박규형	9	이명태	15	
허길진	16	정영재	7	유신규	20	이봉기	6	이영기	9	유섭	15	
신재인	17	김유승	7	이지태	20	정진석	6	박광수	10	이태효	15	
강우영	17	전임상	8	이극선	20	이성호	6	이원일	10	나인준	15	
강모진	18	한조원	8	전철호	21	이종호	6	이성인	10	이상윤	15	
조형오	18	문우백	8	최광훈	22	이태호	6	김삼균	10	김영욱	15	
김경오	19	이백천	8	정세희	23	문은찬	6	이범진	11	이덕노	15	
이경섭	19	박연희	8	조근태	23	임은석	6	이공기	11	임건식	16	
윤현태	20	김돈기	8	하영길	24	홍병의	6	송승승	11	이재용	16	
김배선	20	김영부	9	윤종근	24	신명화	6	김승진	11	이종규	16	
이호선	20	김영의	9	정삼진	24	배중현	7	차성태	11	이관호	16	
정세진	20	박장우	9	황석현	25	이상길	7	강건수	11	김창호	16	
이종오	21	김영빈	9	조민원	25	인종현	7	유동욱	12	박재식	17	
강희윤	22	손승언	9	김수B	26	유기동	7	김승희	12	김상집	17	
김근식	22	양승무	9	현달	27	정연흥	7	김성훈	12	김한규	18	
유영식	23	이수자	9	정현석	28	박승윤	7	장해성	12	김윤길	18	
박중화	23	윤태노	9	최병원	30	강재우	8	문병수	12	이명우	18	
강한구	23	이양원	10	일반회비(20,000원)			유재신	8	이명훈	12	이준성	18
임준석	23	이대목	10	김인호	1	이규천	8	오형철	12	이백광	19	
정덕승	24	서삼균	10	김진애	1	정재영	8	조성행	12	김상좌	19	
김승규	24	김대규	11	조필빈	2	최영자	8	최덕구	12	김승호	19	
이희억	25	이철신	11	황민규	2	김중정	8	홍정호	12	권광일	19	
최면용	26	박찬희	11	김길수	2	최문기	8	이광대	12	남영수	19	
안희덕	27	김창중	11	박병한	2	안형이	8	김재균	12	배영덕	19	
양숙식	28	김미자	11	심순섭	3	김치	8	정상회	13	김동희	19	
김광식	30	이정구	12	오순하	3	최숙자	8	문우호	13	정연준	20	
이사회비 (120,000원)												
홍만	1	이호섭	12	김순하	3	이자수	8	김희규	13	남준자	20	
손동	1	박영준	12	박익환	3	손수복	8	김인호	13	김증금	20	
김욱	1	최병호	12	손석우	3	임성빈	8	손일순	13	박광성	20	
김기	1	노덕재	12	강기수	3	이태하	8	권일동	13	이철순	20	
정덕	2	강우희	13	서동수	4	정달	8	유창	13	박문	20	
이문규	2	엄계숙	13	김영대	4	최병	8	유용	13	박영	20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박영근	20	김봉일	26	안승희	32
김영업	20	나종우	26	김광복	32
정택일	20	이근주	26	유귀숙	32
이영희	20	양승훈	26	김형기	32
노재하	21	고영주	27	박병구	32
이훈영	21	김흥규	27	김지현	32
맹성수	21	송재욱	27	손정석	32
어경남	21	양건모	27	전광석	33
정재일	21	한영임	27	소정우	33
장성만	21	장명준	27	고복연	33
송희복	22	이충술	27	유정순	33
한상훈	22	이혜숙	27	윤종보	33
이영명	22	오명동	27	이미정	33
신이철	22	이종필	27	이규희	34
김태일	22	김창식	27	김종국	34
김영희	22	김정호	27	김영미	34
김광준	22	맹영진	28	임혜숙	34
이상순	22	이상수	28	조성현	34
장용운	22	김미경	28	이현웅	34
전일수	22	김형준	28	이준희	34
이주원	22	조상오	28	강선희	34
김종궁	22	남성호	28	이정문	35
구제호	22	조승찬	28	김미선	35
엄태희	22	김유곤	28	김진희	35
김영출	23	한규인	29	김희훈	35
조병학	23	이경우	29	김성현	35
윤명숙	23	장우성	29	오창용	36
임종서	23	한일룡	29	권문식	36
김수종	23	백승권	29	장정훈	36
안봉국	23	이상원	29	정창은	36
한병철	23	우종오	29	김은선	36
천경호	23	강철선	29	한덕현	37
이훈규	23	홍민숙	30	박정구	37
김형기	23	강승억	30	신희관	37
김윤덕	23	장현주	30	고성호	37
박은원	24	손은실	30	이명희	38
김기준	24	이경숙	30	정필련	38
임무호	24	곽필신	30	곽분임	38
임철빈	24	최현희	30	박웅석	38
최금순	24	강성철	30	방근철	39
문숙희	24	신동근	30	임재용	39
박용석	24	김광식	30	임제미	41
오세흥	24	윤기숙	30	신미경	41
이승태	24	이계형	30	오현진	41
이문홍	25	김규수	30	최현민	41
송태수	25	김학선	30	이종호	41
이수영	25	강정희	30	이창경	42
김태원	25	심명섭	31	최장순	42
김선열	25	송소연	31	김영옥	43
김완기	25	김양수	31	강성원	43
이영제	25	정문숙	31	이승준	44
양승훈	26	유인숙	31	고정봉	44
문영철	26	왕경란	31	이종화	45
이영준	26	오세정	31	권영은	45
조병주	26	최윤갑	31	김은경	46
김형남	26	유지영	31	박준영	47
정기춘	26	진용화	31	손진혁	47
손영상	26	박래경	32	김지혜	48
정태형	26	유미재	32	김지경	48
최교석	26	박재홍	32		

장학금 수여식

모교 교수 세미나실



2006년도 2학기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금 수혜자

장학금명	장학금액	학년	수혜자명	평점
본 동 문 회 (7,000,000)	700,000	약학2	양미경	4.09
	700,000	약학2	최대림	4.00
	700,000	제약학2	김경덕	4.13
	700,000	제약학2	조성하	4.04
	700,000	제약학3	강동혁	3.95
	700,000	제약학3	최윤희	3.90
	700,000	약학4	차윤민	3.97
	700,000	약학4	이진경	3.92
	700,000	제약학4	홍승태	3.92
	700,000	제약학4	김주완	3.76
부 산 동 문 회 (500,000)	500,000	약학부1	남지운	3.71
안 산 동 문 회 (500,000)	500,000	약학부1	김현진	3.55
여 자 동 문 회 (1,000,000)	500,000	약학3	차유진	3.78
	500,000	약학3	고현정	3.72
ROTC동문회 (500,000)	500,000	약학4	김인철	3.18
약제반동문회 (1,000,000)	1,000,000	제약3	엄재윤	2.76
약수회동문회 (1,800,000)	1,800,000	약학	감기백	3.35
나사모동문회 (1,000,000)	1,000,000	약학	허장현	2.52
합 계 : 13,480,000				



발전기금 조성 내역(기수별)

총 22억 3천 2백 7십만원 (2006년 10월 30일 현재)

교 수 총 17,000 만원

- 〈교내〉 이민원(1,000), 최영욱(1,000), 임철부(1,000)
 염정록(700), 김창종(700), 김미영(500),
 이도익(500), 임채욱(500), 김대경(500)
 황완균(500), 김하형(500), 김홍진(500)
 심상수(500), 손의동(700), 천영진(500)
 김종갑(500), 손동헌(500), 이광표(500)
 홍순각(500), 김기호(500), 허인회(500)
 황광우(500), 한상범(500), 이재휘(500)
 최형균(500), 조사연(500)
 〈타교〉 오유진(300), 한성순(100), 주왕기(300)
 염윤기(300), 석대은(300), 권광일(300)
 임세진(300)

학 생 총 5,350 만원

동문회장단 총 30,500 만원

- 권혁구(1,000), 임상묵(1,000), 유영후(1,000), 조의환(11,000),
 안병식(1,000), 박종화(1,000), 정재일(500), 이기안(500),
 박숙자(500), 김연희(500), 이규진(500), 박호일(500), 유정사(500),
 정덕호(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강옥희(500), 서국진(500),
 윤대봉(500), 박석동(500), 정명진(500), 김경오(500), 이규식(500),
 김현태(500), 김종열(500), 김승재(500), 김종성(400), 김승태(400)
 정찬현(400), 김수배(300), 이호섭(300), 박계환(300), 이경옥(300),
 김영식(300), 허근희(300), 박찬희(300), 노덕재(300), 조기현(300),
 양희익(300), 이내홍(300)

단체기부 총 5,950 만원

- 중삼친목회(300) • 미주(L.A.) 3회 동기회(50)
- 91학번 친목회(이용준 외, 300) •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 7회 동기회(500) • 7회 약우회(박숙자외 11명)(500)
- 64예중회 회원일동(100) • 약대기금(3,200)
- 기업체후원(700)

학부모 및 기타 총 400 만원

- 한충강('02 한인민 학부모, 300)
- 송병준(10/9 심포지엄 연사, 100)

개인·부부동문 총 163,870 만원

기수별 통계 (단위 : 만원)

- 〈1회〉 손동헌(500), 오유진(300), 이광표(500), 홍홍만(300)
 〈2회〉 고두흔(박명자 부부, 700), 서화택(500), 홍순각(600),
 황인규(300), 황재수(100), 한성순(100)
 〈3회〉 김석재(300), 김용옥(50,000), 조영만(이정자 부부, 50),
 한만우(1,000)
 〈4회〉 김기호(500), 김현용(300), 박노일(300), 이연수(300),
 천홍기(300), 허인회(500)
 〈5회〉 박명재(고두흔 부부, 700), 이송학(300), 이해석·강태일 부부
 (1,000)
 〈6회〉 김경희(300), 김동열(300), 김종구(300), 박정배(300),
 신정숙(300), 안병환(300), 유상열(300), 이준장(100),
 임철부(1,000), 추의호(300), 홍병석(300)
 〈7회〉 강승안(500), 김영일(300), 김옥남(500), 김정부(300),
 김정웅(300), 김정자(300), 박명신(300), 박숙자(500),
 박옥규(300), 유영후(1,000), 유윤자(300), 이기환(1,150)
 이기안(노신희 부부, 500), 이능세(300), 이양현(500),
 이준종(60), 인고길(300), 임종홍(300), 이정자(조영만
 부부, 50), 정재일(500), 차승현(300), 한철희(300)
 〈8회〉 김연희(500), 김형이(500), 문옥자(300), 박성애(300),
 박찬수(300), 배영애(100), 신현우(100), 윤주섭(300),
 이백천(1,500), 이조열(300), 임상묵(1,000), 장영재(300),
 정재용(300), 주왕기·김희자 부부(300), 조의환(11,000)
 최병준(400), 한석원(500), 허근희(300), 김홍재(300)
 〈9회〉 권혁구(1,000), 김영부(500), 상병준(300), 서황석(500),
 이규진(500), 이근배(100), 노신희(이기안 부부, 500)
 〈10회〉 김삼균(300), 박호일(500), 방순환(12,000), 서정목(300),
 유정사(500), 이대윤(300), 이양원(300), 장영조(300),
 정승수(300), 정수길(300), 정영기(300), 조규동(300)
 〈11회〉 김승업(300), 김정길(100), 김창종(500), 민대식(300),
 박상희(300), 박찬희(300), 이철규(50), 정덕호(550),
 최옥출(100), 황공용(500), 황문상(500), 홍금재(남기탁
 부부, 500)
 〈12회〉 강옥희(500), 김 구(500), 김초성(100), 남기탁(홍금자
 부부, 500), 노덕재(300), 박영찬(1,000), 민명임(100),
 우홍길(300), 염윤기(300), 이성우(500), 이정희(300),
 이호섭(300), 최병호(300), 64예중회 회원일동(100)

- 〈13회〉 김신미(10), 김종성(400), 박동규(300), 문재빈·김애련 부부(500), 서국진(500), 안병식(1,000), 윤창현(300), 조종목(300), 이종각(박종애 부부, 500), 조성복(홍순경 부부, 500)
- 〈14회〉 김명웅(1,000), 김원순(300), 김종열(500), 윤대봉(500), 이규식(500), 정도연(1,000), 정진모(300)
- 〈15회〉 김승태(400), 김용익(300), 박석동(500), 석대은(300), 안민철(300), 이인석(300), 조찬휘(500), 위혜주(300)
- 〈16회〉 강명채(500), 김광식(300), 김선기(300), 김성광(100), 박종애(이종각 부부, 500), 이상규(300), 윤영로(200), 조기현(300), 한인희(300), 홍순경(조성복 부부, 500) 최광식(전순희 부부, 500)
- 〈17회〉 김인형(500), 선우영환(방금숙 부부, 500), 김대희(400), 신상직(500), 양희익(300), 유종관(300), 장재인(300), 전상훈(300), 정갑진(300), 주완표(300), 최해광(300)
- 〈18회〉 강응모(성낙순 부부, 500), 김기명(300), 김청길(300), 박계환(300), 정명진(500), 조중형(300)
- 〈19회〉 권광일(300), 권영훈(300), 권창호(500), 김경오(500), 김동희(300), 박효식(300), 옥태석(300), 이경옥(300), 이창욱(300), 최중숙(300)
- 〈20회〉 강혜옥(300), 김영섭(330), 김종갑(300), 김현태(500), 박기배(300), 송영호(300), 방금순(선우영환 부부, 500) 서종원(300), 송창수(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윤춘수(300), 이신규(300), 이극선(300), 이상일(500), 임구래(300), 정영수(300), 임경원(이현숙 부부, 1,000) 정찬현(400), 지태현(300), 차재근(300), 최운환(300)
- 〈21회〉 강성무(300), 김대일(300), 김병무(300), 김수배(300), 박전희(100), 백운경(50), 어경남(300), 이규섭(300), 이세진(500), 전명선·김민숙 부부(300)
- 〈22회〉 강희운(300), 김철수(300), 김홍진(500), 박동우(300), 손의동(700), 오황영(400), 유대식(300), 이상돈(100), 이정석(300), 장용운(300), 전일오(300), 최광훈(300), 정진호·강명희 부부(500)
- 〈23회〉 강호영(100), 공인호(300), 권석형(500), 김수종(300), 김영식(300), 김항만(300), 박종화(1,050), 박희용(100), 양재업(300), 이도익(500), 이승하(300), 이원길(300), 이정대(100), 임상규(300), 임준석(300), 정덕기(300), 정원국(300)
- 〈24회〉 김관식(500), 김상현(300), 오동근(300), 윤규형(550), 김승재(김희식 부부, 500), 윤원철(300), 이광섭(300), 이규삼(100), 이범도(310), 이영주(300), 임무호(500), 정상수(300), 조종래(500), 최영욱(1,000), 함삼균(50), 최재윤(김윤경 부부, 500), 함한성(300), 홍용기(300), 황규진(300)

- 〈25회〉 고성권(300), 김영식(300), 김춘규(100), 김희섭(300), 성낙순(강응모 부부, 500), 손현우(600), 위성건(500), 이내흥(300), 이민원(1,000), 이재희(김은진 부부, 500), 이현수(300), 조순현(300), 최두주(300), 조석현(임흥옥 부부, 500)
- 〈26회〉 김안식(300), 김영후(300), 라종우(300), 문형철(300), 박재길·오옥희 부부(500), 백낙기(300), 선우일원(300), 심상수(500), 이영준(300), 이종량(300), 정태형(300), 이창훈(이숙희 부부, 500), 진희역(300), 최민규(300), 황완균(500)
- 〈27회〉 안산 79학번 동교회(김덕진, 오순용, 오흥설, 이상필, 이창오, 이현수, 한봉길, 최면용 각각 300씩 총 2,400), 곽순자(300), 김정호(300)남상진(300), 박수길·이정아 부부(500) 박영달(300), 방만성(조순연 부부, 500), 변영신(300), 안희영(300), 양건모(300), 유기조(300), 오영돈(300), 이선애(100), 최기선(310), 현기원(300),
- 〈28회〉 김광선(300), 김미경(300), 김영희(300), 김윤경(최재윤 부부, 500), 김유곤(500), 김희식(김승재 부부, 500), 박용석(100), 박우종(300), 안희규(300), 양덕숙(300), 이병천(300), 이용해(300), 이숙희(이창훈 부부, 500), 이해룡(300), 임세진(300), 임채욱(500), 장원규(300), 전금용(300), 조상오(300), 조효금(300)
- 〈29회〉 강대용(300), 강철선(300), 김영자(300), 김은진(이재희 부부, 500), 서경원(300), 손병로(300), 안성진(300), 유종운(300), 유인석(300), 이종민(300), 이 준(310), 이 철(300), 장우성(300), 정진호(300)
- 〈30회〉 김광식·윤기숙 부부(500), 김미영(300), 박복자(300), 서봉호(100), 신일균(300), 이인자(300), 장부자(300), 조덕희(300), 조순연(방만성 부부, 500), 천세영(300), 최병원(300), 황유세(300)
- 〈31회〉 김진흥(300), 김하형(500), 박건규(50), 변동성(300), 이현숙(임경원 부부, 1,000)
- 〈32회〉 고은미(300), 박은미(300), 조양연(300), 채영주(500)
- 〈33회〉 박재훈(240), 임희원(300), 이재휘(500)
- 〈34회〉 민성철(300), 배규환(300), 이선우(300)
- 〈35회〉 광정근(300), 권준한(300), 황광우(500)
- 〈36회〉 방극상(50), 안영윤(300), 우경아(300), 임성호(300)
- 〈37회〉 오상희(100), 정병욱(300)
- 〈38회〉 박용석(300)
- 〈39회〉 박종호(300)
- 〈40회〉 한국약품(이병두, 300)
- 〈41회〉 구영준(300)
- 〈43회〉 강규태(100), 김중호(100), 신명숙(300)
- 〈44회〉 문상희(100)

조성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harm.cau.ac.kr)나 동문회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뚜렷한 비전이 있고 정직하며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비전이 없으면 그 집단은 생명력을 상실하며 정직하지 않으면 정의가 사라지고 행함이 없으면 성공이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 선택한 지도자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아왔다. 그것이 좁게는 약사사회뿐 아니라 국가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번호엔 서울과 경기도의 약사사회를 위해 헌신할 동문대표를 소개한다. 12월 선거에 승리해서 초지일관의 신념으로 봉사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황 공 용 (11회, 부회장/편집위원장)

아버지!

돌아 가신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영정 사진에서도 늘 멋진 중절모를 쓰고 계시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평생 願하셨든... 그리고는 못하셨던 그 恨을 이놈이 기어코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까짓 생김대로 살지..뒤..." 하는 그 체념에서 벗어나 아내와 자식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드디어 아버지 당신께서 물려주신 넓은 이마를 가리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잠시의 갈등에서 벗어나게 해준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당신의 미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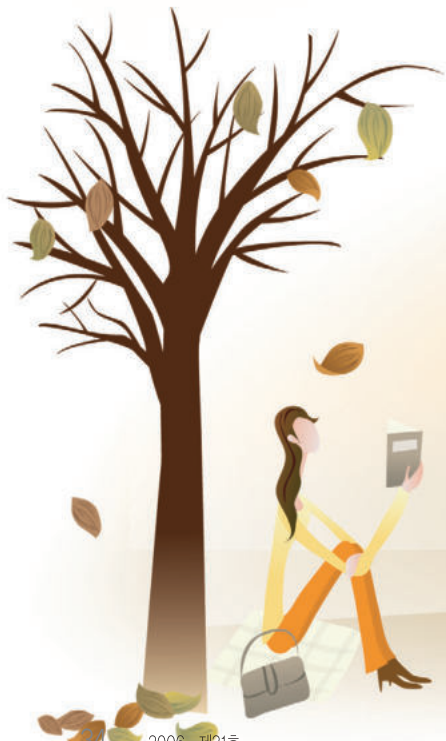
김 기 명 (18회) 편집위원

바야흐로 약사회 선거 씨즌이다. 직선2기를 맞는 약사회의 선거인데 3년전 첫번째에 비해서 시스템이나 방법면에서 별반 나아진게 없는 것 같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닥치고 난 후에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돈은 돈대로 쓰고, 힘은 힘대로 들고 우리 약사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후보들이 너무 안스럽다. 세상이 다 변하는데 우리약사회만 그대로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번에 전국 각지에서 출마한 중대 동문들의 필승을 기원하면서 그들로 인하여 변질이 아닌 변화되는 약사회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파이팅!!!

김 경 오 (19회) 편집위원

삶이 힘들다고요. 물론 힘들지요. 세상의 모든 구조물은 노동의 결과지요. 사과 나무에 사과가 열리기까지 과정을 보면 삶은 결코 간단치 않았지요. 겨울을 이겨내 꽃을 피우고 여름날의 뜨거운 햇살과 사나운 바람, 가뭄도 있었지만 견디어서는 빨간 사과를 매단 것이었지요. 어느 것 하나 사람의 땀과 눈물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없거든요. 땀과 눈물이 사람에게 부당한 것처럼 이야기 되는 일면에는 진정 중요한 것이 간과되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소멸되어가는 바다가 바다가 파도로 뒤척이며 생성과 역동성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땀과 눈물도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줄 뿐 만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을 깨달아야함을 느낍니다.

김 정 수 (26회)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 황공용(11회)

〈 편집위원 〉 김종렬(14회), 김기명(18회), 김경오(19회), 박희용(23회), 김정수(26), 이준(29회)

동문여러분의 옥고를 모십니다

동문회 및 회원들의 활동과 관계된 것이면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나 환영합니다. 가급적 관계되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접수〉 동문회보 편집실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

**피로와 피부를 탓하기 전에
활성산소부터 의심해 보세요!**



**건강이
재산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 보강!

과로, 스트레스, 흡연, 공해가 심해지면 체내에 활성산소(유해산소)가 쌓이고, 오래 지속되면 각종 질병과 성인병, 노화를 부르기 쉽습니다. 아로나민 씨플러스는 1일 섭취량으로 충분한 **비타민C 1200mg, 비타민E, 셀레늄, 아연** 등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와 피로를 풀어주는 **활성비타민 B1, B2, B6**, 몸에 필요한 **엽산, 철분**을 보강하여 현대인의 건강은 물론 여성의 피부건강까지 지켜줍니다.

피로에서 피부까지-
아로나민·씨플러스



활성산소와 항산화제 활성산소란 세포 내 지질과 단백질, DNA를 공격해 각종 질병과 노화를 앞당기는 유해산소로써 과로, 과음, 과식, 흡연, 스트레스, 공해, 자외선 등으로 생성되어 몸에 쌓이게 됩니다. 항산화제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물질로 비타민C, E, 셀레늄, 아연 등이 대표적입니다.



매일매일
2정씩

- ▶비타민C 1200mg (항산화제)
- ▶비타민E(토코페롤) 40IU (항산화제)
- ▶셀레늄 50µg (항산화제)
- ▶아연 18.66mg (항산화제)
- ▶철분 27mg
- ▶엽산 500µg
- ▶비타민B1 54.57mg (활성비타민)
- ▶비타민B2 10mg (활성비타민)
- ▶비타민B6 10mg (활성비타민)
- ▶비타민B3 100mg
- ▶비타민B5 40mg
- ▶비타민B12 12µg
- ▶비오틴 45µg (일일 권장량 기준)

피로·눈의피로 / 기미·주근깨 / 체력저하 / 임신·수유기 / 요통·신경통
■제품문의: 080-022-1010 (수신자부담) ■www.aronamin.com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 565-1700 팩스: (02) 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

<http://www.caupharm.or.kr>